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각 나라별 선교회

| 구분 | 중국선교회 | 인도선교회 | 말레이시아선교회 | 일본선교회 | 인도네시아선교회 | 페루선교회 | 미얀마선교회 |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
|------|--|--|---|---|------------------------------------|-------------------------------------|-------------------|-------------------|
| 담당성전 | 안양, 산본, 포일, 부곡 | 수원, 영통, 진위, 전원, 동탄, 안중, 평택, 용인, 남양, 용진, 전주효자 | 안산, 시화, 시흥, 인천, 부천, 부평, 영종도 | 과천, 판교, 강남, 구리, 광주 | 광명, 영등포, 원주, 천안 | 일산, 김포, 정유, 전주평화 | 수원, 양주, 서산, 당진 | 수원, 대구, 세종 |
| 연락처 | T:031-448-1793 T:031-443-3731~2 (주내 112) C.P:010-4564-7539 |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 T:031-448-1793 T:031-449-1793 C.P:010-8277-2944 |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 T:02-894-3731 C.P:010-8277-2944 | T:031-906-3731 C.P:010-5335-7050 | C.P:010-5358-1233 | C.P:010-5358-1233 |
| 성가단 |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파이어 | | | | | | | |

-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우리 교회 해외선교 25년의 발자취 ‘세계선교 전시관’ 개관

조용목 목사님 “선교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 강조



우리 교회의 해외선교 비전과 역사를 한데 모은 ‘세계선교 전시관’이 안양성전 트루스빌딩 10층에 마련되어, 3월 15일(수) 오후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은 분부 임원과 나라별 선교회 회장 등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임원과 전시관 개설을 위해 헌신한 청년 회원 등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서 조 목사님은 ‘세계선교 적극화’ 목표를 위해 여러모로 헌신해 온 세계선교연합회 회원과 기도와 헌금으로 세계선교에 적극 동참한 성도들의 헌신에 대하여, 장시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전시관을 기획하고 또 훌륭하게 꾸며서 개관하기까지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봉사자들의 헌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전시관을 방문하는 분들이 감동과 기쁨의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다. 개관식에 이어서 참석자들은 비치된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

보고 영상물을 관람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이날 문을 연 ‘세계선교 전시관’은 ▶해외선교지방문 연혁 ▶의료선교 등 국내 외국인선교회의 활동 ▶IMCR(세계선교와 교회부흥)세미나·MIC(선교사초청대회)·청년IMCR대회 ▶청년봉사자 선교회의 해외선교활동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파이어’의 해외 찬양사역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영상실’에서는 2014년 8월 세계하나님의성회(AOG) 본부가 있는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세계하나님의성회 선교대회’와 함께 열린



- | | |
|--|--|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당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로41번길30 T.042-471-3736 |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남양 : 화성시 시창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안창동) T.031-567-3731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원평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 전원(복합) : 수원시 권선로 227-3, 227-3739 T.031-227-5992-3, 227-3739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재운동) T.041-353-3731 |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남1로 144 T.031-684-3731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 양주 : 양주시 평원로141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아산 : 충남 아산시 열처음 병행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편부면 오성미들길 30 T.033-764-3735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옥산동) T.043-848-3731 |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령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 경유 : 경남 김해시 덕평로2번길39-11 (광동동) T.055-312-3731 | 산서 : 전북 정주시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 웅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헛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 |

- 은혜와진리교회**
-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02-2632-3731
-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은혜와진리소식

2023년 4월 2일 [매주발행] / 발행인: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20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와 함께하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 김혜옥 -

저는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청년봉사선교회 임원으로 선교회를 섬기며 교회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오려려 더 예배중심, 말씀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깊이 깨닫고 우리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자입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에 헌신 봉사하셨습니다. 유년 시절에 저는 주일은 ‘교회에 가는 날’,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날’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구원관과 신앙관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던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와 우상종교를 따르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들과 사귀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저의 나태해진 교회생활 때문에 어머니와 언쟁을 벌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가끔은 토요일 밤에 친구 집에서 잠을 자며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있는 놀이와 파티를 하고 주일에 마음껏 늦잠도 자고 싶었습니다. 안산에서 안양으로 집을 이사하여 안양성전 교회학교로 이적한 후 같은 반 학생들이 낮설어서 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심방도 이런 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피하였습니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성을 다하지 않고 건성으로 예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의 전도로 친척오빠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오빠와 함께 교회학교 유치부에서 보조교사로 봉사하면서 돌이 믿음을 키우고 신앙생활이 발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평소 아이들을 좋아했던 터라 봉사를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많이 흔들렸던 저에게

유치부 봉사는 가문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저의 메마른 영혼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단비였습니다. 유치부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귀중함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성심성의껏 예배 드리면서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어린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며 믿음 또한 성숙해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굳센 믿음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친구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성경과 신앙생활에 대한 지식을 깊고 풍부하게 갖추어 그 바탕에서 대화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제 마음 속에 자만심이 싹트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열심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나에게 더 풍부한 성경 지식을 갖추고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신 분이 내 안에 거룩한 욕심을 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사탄이 자만과 오만이라는 도구로 저의 마음을 해집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친하지 않던 지인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를 만나 반갑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근황을 얘기하던 중 그가 기독교인이고 또한 저처럼 어떤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반가운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고민거리들을 그에게 늘어놓았습니다. 타 교회에 다니는 지인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 후 그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을 함께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천으로 어떤 강연을 들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강연을 하는 강사를 만났습니다. 그 강사가 취업 상담을 빌미로 친근하게 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만남이 순식간에 이상한 성경공부를 위한 만남으로 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철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만남을 갖기로 약속한 날이 되면 저에게 자꾸 이런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몸살이 나거나,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거나, 사고로 몸을 다쳐 병원에 가든가, 계속 만남을 미루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왜 저들이 끈질기게 나와 만남을 갖고자 하고, 또 그 만남 직전에 계속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말을 살펴보고 그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서운 이단집단으로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전 각본대로 접근하여 진행하는 중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학교 부서 전도사님에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곧바로 지인을 포함하여 그 집단에 관련된 자들과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였

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면담을 통하여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며칠 동안 울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권면하고 격려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평신도 성경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열심히 성경을 배우기로 하였습니다. 몇 주 동안 부서 전도사님에게 교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설교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던 행태를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말씀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고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봉사선교회에 소속하고 열심히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여 꾸준하게 경건훈련을 지속하였습니다. 저의 나약함을 알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저는 영육 간에 강건하여지고 더 굳세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아시고 저를 택하여 주셨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실족할 위험에 처했을 때 권능의 손길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혼내시고 성령으로 저를 감싸주시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주님의 일 곧 예배와 봉사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행하며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주님의 사명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며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 누가복음 12장 22절~31절 강해 설교
- 찬송 : 찬송가 342장(새찬송가 543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되 하나님은 이르시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할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한 사람들은 열두 제자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한정된 칭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넓은 의미로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칭호입니다. 제자라는 칭호보다 더 보편적이면서도 특유한 칭호는 ‘그리스도인’과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특별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출신과 소속에 있어서 특별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약하여 기록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하였습니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부른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적절하고 합당한 호칭이므로 교회가 이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호칭은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누가복음 12장 22절~31절 강해 설교”

을 경외하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을,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뜻은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니다. ‘성도’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신앙적으로 동일한 신분의 사람에 대한 호칭입니다.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성도다운 생활 방식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곧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관한 교훈입니다.

첫째, 모든 사물에 경중(輕重)을 판단하고 정하라는 교훈입니다.

22절과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하였습니니다. 사물을 대조하고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귀중하고 덜 귀중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덜 중한 것에 매달려 더 중한 것을 상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숨과 몸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은 소중한 여기면서 남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흉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의 인권과 생명이 어떻게 유린당하는 가를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고 무자비하게 목숨을 앗아가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북한 땅에서 저질러지고 있어도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더욱이 사리 사욕을 위하여 공산당과 독재자를 지원하는 자들은 인면수심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과 몸을 훼손하고 심지어 존속 살인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짐승보다 더 흉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하였습니니다. 육신의 생명도 영혼보다 더 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빼앗기더라도 영혼이 멸망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음식과 옷과 웃도 중합니다. 그러나 음식과 옷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거나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면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영생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부른 이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적절하고 합당한 호칭이므로 교회가 이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지런하게 행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입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되 하나

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하였고, 27절에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니다. 마태복음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여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연상하도록 하였습니니다. 등지에 앉아서 즐기고 있는 새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였습니니다. 공중의 새는 부지런하게 날갯짓을 하면서 먹이를 구합니다. 화병에 꽂아 놓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는 것이 아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는 것이 아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하였습니니다. 들의 백합화는 흙에 뿌리를 박고 비바람에 부대끼면서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성경에는 게으른 사람을 향해 충고하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4절에는 “문짝이 돌져 귀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하였습니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사람마다 신체상태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의 수면은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은 도리어 건강에 나쁩니다. 게을러서 늦도록 일어나지 않고 마치 문짝이 돌져귀를 따라서 돌아가듯 침대에서 뒹구는 것은 더욱 나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항상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있지도 아닌 한 것을 마치 있는 사실인 것처럼 과장하여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습니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는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대비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니다.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두 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니다. 달란트는 돈의 단위로서 한 달란트는 약 6천 드라크마와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신약시대의 로마 화페로는 약 6천 데나리온이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노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우리 돈으로 6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였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 두고 빈둥대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를 남겨 갑절을 가지고 와서 주인께 드렸습니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하였습니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 두었던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리면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이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리워하여 나가지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하였습니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라고 하였습니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하였습니니다. 그리고 별जू기를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 쫓으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하였습니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게으름을 피운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가 주인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니다.

이렇게 추리해 봅시다.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종 역시 바로 가서 장사하였는데 그만 여의치 않게 손실을 보게 되어 반 달란트만 주인에게 돌려드리게 되었다면 주인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주인이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칭찬과 책망의 말을 한 내용을 보아서 그러합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되다.” 하고였고,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였습니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을 내어 바로 가서 최선을 다하여 장사했습니다. 이러한 처신에 대해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였습니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처신에 대하여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였습니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하면 책망과 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빈둥거리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는 빈둥대는 사람이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였습니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되 먹은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놀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쫓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놀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잠 6:6~11) 하였습니니다. 성도는 부지런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째,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25절, 26절, 2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할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였습니니다. 염려 근심은 건강과 행복을 해칩니니다. 그런데 모든 염려가 다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익한 염려도 있습니다. 염려를 두 종류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와 ‘세상 염려’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경건하게 살기 위한 근심입니다. 주의 일을 위한 염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근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와 신자들을 위하여 거룩한 염려를 한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회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고후 11:28,29) 그리고 동족의 구원을 위한 그의 염려를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날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1~3).

경건한 생활을 위한 근심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였습니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근심을 기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심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로 인하여 얻게 되

는 상급과 영광과 기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세상 일로 인한 염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되 염려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하였습니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다가올 내일에 대한 사려 깊은 준비와 대책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책임한 생활태도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엄청나게 귀중한 것을 주시는 분이 그것을 위해 사소한 것을 배려하는 것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보석을 선물로 주는 분이 포장지를 아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무엇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성도들이 더 귀중합니다. 덜 귀중한 것을 돌보시는 분이 더 귀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실 리가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꽃을 돌보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지 않으실 리 만무합니다. 예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하신 말씀을 성도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는 이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명하여 주시니니다.

넷째, 모든 일에 순위를 정하라는 교훈입니다.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하였습니니다. ‘오직’으로 번역된 원어(플래)는 ‘오히려’ ‘보다 더’라는 의미로도 번역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니다. 이러한 낱말들은 “다른 것보다 우선으로”라는 뜻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위를 확실하게 정하여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일의 순위를 정하고 합니다. 쉬운 일부터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인지 힘든 일부터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살펴서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 하나님 중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이성(理性)보다 하나님의 계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성이란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유다서에 기록되었기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행방하는도 또 저하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유 1:10) 하였습니니다. 짐승에게는 이성 없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멸망 길로 가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 만능주의, 이성 제일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만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더욱 놀라운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이성보다 더 차원이 높습니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인간

의 이성으로만 알고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가 됩니다.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니다. 예수님의 제림과 성도의 휴거와 부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사람의 이성만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성경을 역사학, 고고학, 언어학, 문학 등으로 비평하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기사와 이적에 관한 부분을 신화로 규정하고 비신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유주의신학, 신신학(新神學), 해방신학, 사신(死神)신학, 세속화신학, 토착화신학 등의 비성경적인 신학 사조가 교회를 잠식하고 성경적 믿음을 갖는 것을 훼방합니다. 인간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계시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되어도 믿고, 이해가 안되어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② 재물(財物)보다 신앙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물질 만능주의, 물질 제일주의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많은 소유물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한 양과 소의 떼가 많고 노비도 많아지니 그들이 한 곳에 거처하기에는 곤란하여 헤어져 살기로 하였습니니다. 롯은 목축에 유리한 요단 들을 택하여 떠나갔습니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생활을 고려하여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니다. 롯은 요단 들에 거처하다보니 결국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보다 신앙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니다. 그런데 롯은 신앙보다 재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향불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롯은 재물을 다 잃게 되었고 롯의 아내는 재물에 연연하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니다. 신앙생활이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물이 신앙생활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③ 사람들의 뜻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삼습니니다. 다수의 뜻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다수의 뜻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몰아야 합니다. 현실상황이나 다수의 주장과 뜻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동해야 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다수의 요구와 의견을 존중하나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통하여 현실상황을 해석하고 백성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려고 애썼습니니다. 군중의 외침과 원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의 관건은 우선순위의 결정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영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우선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본문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며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